

청소년 흡연실태조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1. 조사배경

흡연은 각종 사망과 질병 발생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들어서도 담배는 여전히 인류의 건강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위험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의 흡연율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의 흡연율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아직 통계적으로는 높지 않으나 여학생의 흡연율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흡연율의 연도별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미래에 닥칠 건강피해를 예측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됨은 물론이고 정부 금연정책의 방향설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88년 이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주관하여 실시하여 오고 있는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실태를 정리 발표하고자 한다.

2. 조사방법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을 시, 도별 및 시부, 군부별로 층화하여 학급을 표본추출단위로 하였다. 조사대상 학교는 각 계층에서 무작위 추출을 원칙으로 하여 전국 양호교사 협의회에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조사대상 학교의 해당 학년 중 1반 학생 전원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조사는 6월과 7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양호교사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거하였다.

이 조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연도별 추이를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1988년 연세대 보건대학원과 한국금연운동협회가 실시한 설문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추가적인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학교, 학년, 나이, 종교 및 학교 소재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학생 가족의 특성으로는 가족 중 흡연자 유무, 아버지의 직업, 학력, 흡연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의 흡연실태는 흡연의 동기,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 흡연을 처음 시작한 시기와 총 흡연한 기간, 하루 평균 흡연량, 흡연의 양상, 지역별 흡연실태, 인문계, 실업계 등 학교별 흡연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흡연의 해독에 대한 지식, 흡연에 대한 태도 및 현재 흡연하는 학생의 금연의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3. 조사결과

가. 흡연율

남자 중학생의 경우 흡연율은 1988년 1.8%에서 2000년 7.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흡연률이 200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 3.5%로 감소하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는 1988년에 23%에서 1997년 35.3%까지 증가하던 흡연율은 1999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99년 32.3%, 2000년 27.6%, 2001년 24.8%, 2002년 23.6%이었다. 여자 중학생의 경우 흡연율은 1991년 1.2%에서 1997년 3.9%까지 증가하였다가 1999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0.9%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도 1988년 2.4%에서 2000년 10.7%까지 증가하였고, 2001년 7.5%, 2002년 7.3%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흡연율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인문계보다는 실업계 학교 학생에서 높았으며, 가족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흡연할 확률이 대개 두배이상 높았다. 흡연의 동기는 '호기심', '친구를 따라서', '멋있게 보이기 위하여'가 가장 많았다.

나.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1988년 이래 흡연의 해독에 대한 지식은 꾸준히 증가하여 90%이상 학생이 흡연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흡연에 대한 태도는 과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흡연은 개인적인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졌다. 2002년 조사에서 전체 대상 학생들의 흡연의 해독에 대한 태도변화를 조사한 결과 남자 고등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으면 괜찮다”고 응답한 학생이 44.6%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므로 안좋다”가 37.2%, “개인적인 일이다”가 18.2% 순이었다. 남·여 중학생과 여자 고등학생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므로 안좋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71.0%, 69.6%, 48.5%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흡연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1988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 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므로 안좋다”는 태도는 같은 기간에 꾸준한 감소를 보였다.

흡연 학생들이 생각하는 금연의 이유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흡연이 불건전한 행위로 생각되어서”가 많았다. “경제적인 이유로”라고 응답한 학생은 10% 미만으로 적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을 하게 되면 얻는 이득에 대해서 남학생의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입 냄새가 좋아진다. 돈을 절약하게 된다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표 1. 중, 고등학교생의 흡연률 변화

(단위 : %)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남자	1988	0.4	2.1	2.7	1.8	9.5	19.1	40.4	23.0
	1989	1.8	1.6	2.0	1.5	17.3	26.8	50.0	32.0
	1991	1.9	3.8	3.6	3.2	14.3	38.2	44.8	32.2
	1993	1.6	2.5	2.7	2.2	13.6	24.9	40.2	25.5
	1995	1.0	4.2	1.9	3.8	15.2	30.3	33.2	26.1
	1997	1.5	3.8	6.3	3.9	21.6	41.0	41.6	35.3
	1999	1.1	8.7	7.0	5.6	24.7	31.1	41.0	32.3
	2000	2.7	6.3	10.6	7.4	19.9	29.8	37.9	27.6
	2001	2.2	5.5	8.5	6.0	10.1	32.6	29.6	24.8
여자	2002	2.0	1.4	7.8	3.5	15.8	24.2	30.2	23.6
	1991	0.8	1.0	1.8	1.2	1.3	1.9	4.3	2.4
	1993	1.4	1.5	1.1	1.4	1.2	2.7	2.6	2.2
	1995	1.2	2.8	3.6	2.6	3.8	5.1	5.6	4.7
	1997	3.2	4.4	3.7	3.9	9.9	7.2	7.3	8.1
	1999	2.2	3.2	3.5	3.1	10.5	7.4	5.3	7.5
	2000	0.9	1.0	6.6	3.2	12.2	10.0	10.5	10.7
	2001	0.6	1.8	3.3	2.0	9.6	6.1	7.3	7.5
	2002	0.0	1.6	0.8	0.9	8.5	9.6	3.5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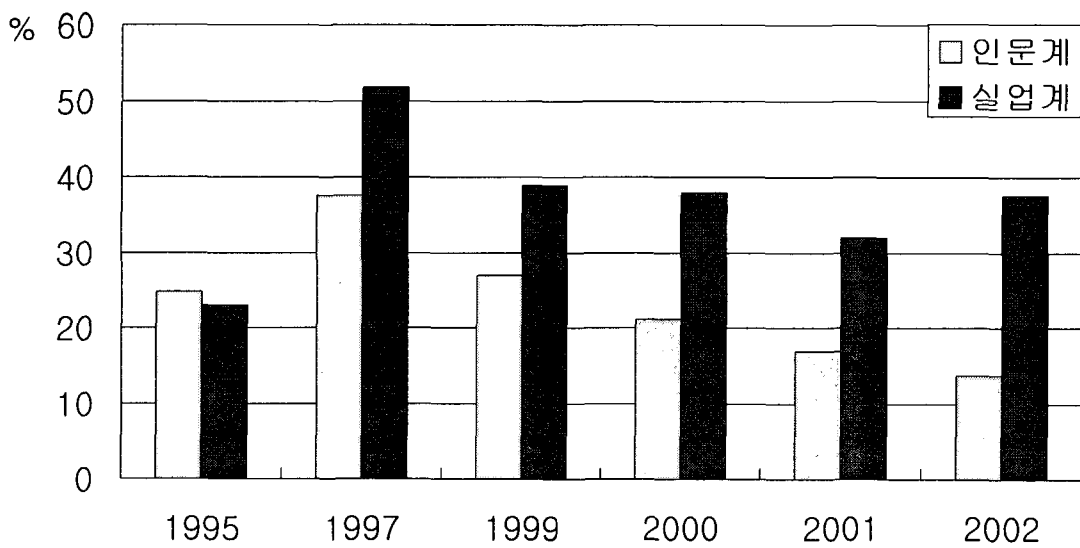


그림 1. 학교 유형별 흡연률(남자:1995-2002)

다. 가족흡연과의 관련성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흡연과 학생 흡연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가족 중 흡연자가 없는 학생에 비해 가족 중 흡연자가 있는 학생이 흡연할 위험은 최저 1.38배(1999년)부터 최고 1.94배(1997년) 높았다. 이 결과는 가족 중 흡연자 유무와 자녀의 흡연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표 2. 가족의 흡연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흡연여부(남자 고등학생)

(단위 : 명(%))

	학생흡연	가족흡연(%)		X ²	OR
		유	무		
1988	유	352(25.8)	57(15.9)	20.0**	1.70
	무	1014(74.2)	302(84.1)		
1989	유	412(34.8)	89(22.6)	20.6**	1.82
	무	772(65.2)	304(77.4)		
1991	유	378(34.0)	106(27.0)	6.2*	1.39
	무	735(66.0)	287(33.0)		
1993	유	319(28.0)	81(19.0)	12.6**	1.65
	무	821(72.0)	345(81.0)		
1995	유	244(29.3)	75(20.7)	9.0**	1.58
	무	590(70.7)	287(79.3)		
1997	유	325(39.3)	78(25.0)	19.8**	1.94
	무	501(60.7)	234(75.0)		
1999	유	258(34.9)	84(27.9)	4.4*	1.38
	무	481(65.1)	217(72.1)		
2000	유	233(30.5)	79(21.5)	10.1**	1.68
	무	507(69.5)	289(78.5)		
2001	유	176(28.5)	60(18.0)	12.9**	1.82
	무	441(71.5)	274(82.0)		
2002	유	120(28.6)	62(18.1)	10.7**	1.81
	무	300(71.4)	280(81.9)		

*: p<0.05, **: p<0.01

4. 토의 및 결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은 1988년 이후 10여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1999년,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 2001년,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2001년,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 1999년부터 각각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는 여전히 학생 네 명중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다. 또한 흡연의 해독에 대한 지식은 증가되고 있지만, 흡연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인 일이며, 남에게 피해가 없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의 흡연 청소년들은 앞으로 30-40년 후에 흡연으로 인한 고통, 불행, 질병, 사망 그리고 수명의 단축 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개개인과 가족의 불행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흡연문제는 우리나라 보건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운동 차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정교육 차원에서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청소년의 흡연문제 해결의 핵심은 어른들이 금연함으로써 모범을 보이는 일이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라도 학교에서 철저한 지도와 이미 제정된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 등의 법 집행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